

국내 원전보도에 관한 원자력 유관 산업 종사자들의 인식

최숙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The Nuclear Related Organization Workers' Perceptions about Nuclear Power Plant News in Korea

Sook Choi

Inviting Researcher, Institute fo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at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요약 본 연구는 최근 급격히 늘어난 국내 원전 보도의 불균형성에 대한 비판을 문제의식으로 하여 원전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얻는 유관기관 종사자들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국내 원전 보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했다. 원전에 대한 논의에서 당사자적 입장을 갖는 이들은 원전보도가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측면만 편중 보도하고 있으며, 위험에 대해서만 과장되고 왜곡된 보도를,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원전에 대한 몰이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원전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서 선정적이고 위협적 소구에 편중된 프레임은 초월하는 균형 잡힌 원전보도를 위해 저널리즘적 성찰과 경계에서 나아가 과학적 전문 지식의 점검, 에너지 영역 전문 기자 양성 등 과학보도에 대한 정책적 변화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주제어 : 원전 보도, 국민수용성(PA), 원자력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당사자적 시각, 사회적 수용성

Abstract The Press related Energy including nuclear energy has social responsibility that it should pass the scientific factors to the right. It is essential to ensure the accuracy and fairness. The general public, such as press releases and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indirect communication affects social acceptance of nuclear power, which is used to determine the direction of energy policy,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be taken into account. Recent rapid increase coverage of NPP lose in balance of nuclear power plants. In this study the qualitative interviews were performed with the workers who stand directly in obtaining information about nuclear related organizations. By E-mail and FGI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workers' perception about domestic nuclear news. They perceived the NPP news that the negative aspects of nuclear power plants were too much dealt in nuclear news coverage, and risk of NPP is only exaggerated and distorted, the lack of expertise knowledge on nuclear power and recognize that the cause was a lack of understanding. 'Nuclear mah' for the event were aware that should dig more thoroughly.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Key Words : NPP, Public Acceptance, NPP communication, Energy Communication

Received 14 May 2014, Revised 18 June 2014

Accepted 20 July 2014

Corresponding Author: Sook Choi(Inviting Researcher, Institute fo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in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mail: sookchoi@hotmail.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에너지 기술이 인간의 삶의 핵심에 자리 잡게된 오늘날 에너지 관련 보도는 과학적 사실을 바르게 전달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가 있다. 원전에 관한 보도 역시 정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원전이 갖는 양면성을 평가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노출할 뿐 아니라 예방적 기능도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보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최근 원전 보도가 우리나라의 다른 재해보도에서 보이는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몇 년간 국내 언론의 원전에 관한 보도는 급격히 늘어났는데, 후쿠시마 사태와 ‘원전 비리’나 ‘한수원 사태’ 및 전력공급난 등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로서 다양한 층위의 언론에서 원전에 관한 담론이 양적으로 더욱 팽창한 것이다. 이렇게 양적으로 급격히 늘어난 보도들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해 전문성을 결여한 보도, 피해를 줄이고 복구할지에 관한 행동요령을 제시하기 보다는 피해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갈등상황만을 강조하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로 흐르고 있다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1][2].

이렇게 증가된 원전 보도가 균형을 잃고 있다면 이에 대한 성찰이 필수적이다. 특히 과학 및 위험 기술에 대한 수용주체의 인식은 직접적인 경험보다 언론보도와 같이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얻은 정보를 기초로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균형을 잃은 언론 보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원전에 관한 보도는 다시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3][4][5]. 위험 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는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미디어 연구 영역과 에너지 정책에 관한 학술적 차원에서 국내 원전관련 언론보도의 특성과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어져 왔다[6][7][8]. 본 연구는 그러한 연구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시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원전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얻게 되는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현재 언론 보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이들의 인식은 현재 원

전 관련 언론보도의 어떠한 측면이 문제적이며,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에너지 커뮤니케이션을 이끄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논의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국내 원전 보도에 대해 당사자적 입장과 동시에 전문가적 입장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좀 더 심층적인 접근을 위하여 질적 인터뷰를 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물론 인터뷰 참여자들이 원전 보도의 진위를 규명해줄 것이라는 기대에서 연구를 기획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최근 원전 보도가 더욱 다층적이고 맥락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방향을 지킬 수 있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에너지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 내 책임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이며 장기적으로는 향후 에너지 정책 수립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될 사람들이다. 이에 이들의 원전 보도에 관한 인식은 우리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및 실행에서 통찰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논의

2.1 원자력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수용성

원자력 관련 시설의 입지선정이나 운영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다수 야기되고, 이러한 갈등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는 것이 단지 최근의 일은 아니다. 이러한 갈등의 저변에는 원자력의 위험(risk)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수량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적 안정성과 별 관계없이 형성되고 있으며, 오히려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위험인식(perceived risk)과는 간극이 있기 때문이다[9][10].

그러한 간극의 폭이 큰 이유는 물론 원자력이 가지는 잠재적 위험의 특성 때문이다. 원자력 기술은 알려지지 않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며,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실제 위험이 드러나고, 통제 불가능하며, 대제앙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11][12][13]. 이는 기초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를 반복시킬 정도로 기술적 위험과 위험인식이 괴리가 큰 것은, 원자력 사업자나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은 점 때문이다[14][15].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자력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이기도 하다. 원자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수록 위험인식의 정도가 커진다는 주장도 있다[16]. 이는 해당 이슈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17]. 이에 원자력에 대한 수용주체,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원자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시키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18].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바로 선호도가 높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식의 양보다는 그 지식을 획득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과정에 따라 위험인식을 포함한 원자력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기도 한다. 직접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경험이 적은 상태에서 위험인식이 부정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 현장방문을 통해 사람들의 위험인식에 변화가 있었다는 연구결과[19]를 볼 때 이렇게 원자력에 대한 간접적 경험만으로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이 이뤄질 경우 부정적인 인식만이 지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이 원자력 관련 정보를 얻게 되는 경로는 대부분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매체라는 간접적 소통 과정이다[20][21].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을 둘러싼 논쟁의 이면에는 신뢰성의 문제도 있다. 원자력에 대한 일반 대중의 위험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그러한 위험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신뢰성은 위험인식의 핵심요인으로[22][23] 수용성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 이에 원자력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 부족 연기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정부나 원자력 기술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신뢰수준이 개인의 위험인식에 그대로 투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 전문가, 정부 또는 원자력 기술 및 시설의 운영기관에 대한 신뢰성은 위험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정부의 원자력 관리능력이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않거나 또는 정부가 자신들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24] 원자력 커뮤니케이션에서 원자력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보다 직접적으로 획득하고 있는 유관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관심 역시 의미가 있다.

2.2 원자력 관련 언론 보도에 관한 선행연구

앞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자력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일반 대중들에게 주변 환경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하는 핵심적 경로가 언론매체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원자력 관련 언론 보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원자력 및 원전과 관련한 언론보도에서는 주로 사건, 사고, 갈등이 뉴스가치를 가진다. Greenberg 외는 미국 네트워크 TV의 저녁뉴스에서 원자력과 환경 관련 뉴스가 대형 화학물질 유출 사건과 같이 예기치 못한 재난들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과 이해관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25]. 이는 결국 위험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건과 사고, 그리고 갈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자력 관련 보도는 사건이나 사고, 갈등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부정적인 함의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증가한다.

이에 원전 관련 사고의 빈도가 매우 낮아도 원전기술에는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한다는 강한 신호를 만들어내고[12] 이러한 신호는 언론보도를 통해 원자력과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인식을 고착시미고 낙인화(sigmatization)한다. 낙인찍힌 원전에 대한 이미지로는 부정적인 사건의 이미지가 너무 강력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일순간에 고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매체를 통한 낙인 효과는 원전과 같은 위험기술에 대한 태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26].

또한 원전 보도의 특성 및 프레이밍 분석을 통해 원전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해 낸 연구들[2][27]에서 사건과 사고 및 갈등을 강조하고 과장된 위험에 예민하게 될 수 있는 특성 및 프레이밍을 보여서 결국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의 공공담론 형성에 실패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최근 후쿠시마 사고와 원전비리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상과 같이 언론보도를 통해 형성되는 사람들의 원전에 대한 위험인식이 원전 위험과의 간극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언론 보도가 사회적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이처럼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디어를 통한 부정적인 지식의 획득은 일반 국민들의 위험인식을 제고시키고, 이로서 수용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원자

력 관련 기관의 신뢰성과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6]원자력에 대한 지식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위험인식이 강하고 그로 인해 수용성이 떨어졌다면 그만큼 원자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된 내용에서 지식을 획득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3. 연구방법

현재 고리·월성지역에서 원자력 유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과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원전 유관 기관 종사자들의 무엇보다 단편적인 설문 결과로는 얻을 수 없는, 보다 심층적인 수준의 인식구조를 확인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뷰 대상자인 원전 유관 기관 종사자들은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대해 소위 '내부자 입장'에서 원전보도를 인식하여 원전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보다는 긍정적인 보도를 선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들을 특수한 문화집단으로 전제하고 조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스노우 볼링 기법을 이용하여 점진 확장하여 만나게 되었다. 총 32명과 이메일 및 면대면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메일을 통하여 사전 설문조사를 한 후 좀 더 심층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관련 답변을 적극적으로 기술한 참여자들을 섭외하여 FGI를 실시했다. 인터뷰 참여자들을 만나는 방식을 1대1 보다는 두 세 명이 함께 그룹으로 만났다. 서로 상호대화를 통하여 보다 활발한 의견이 표출되도록 했다.

3.1 인터뷰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Table1>에 정리한 것과 같이 인터뷰 참여자들의 성별은 남성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여성이 한 명이었다. 총 답변자 들 중 20명이 기술/기능직에, 7명이 행정/사무직, 1명이 연구원, 2명의 기타 부서에서 종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인원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연령은 20대가 2명, 30대가 23명, 그리고 40대가 7명이었다.

<Table 2>에 정리한 것처럼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이메일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원전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관심정도, 원자력 국민 수용성을 위해 언론보도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원전보도가 공정하고 정

확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반핵과 반원전에 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정도를 묻는 질문은 매우 그렇다(5)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 가운데서 선택하도록 요청하였다. 표내의 값은 참여자들의 답변을 모아 단순 계산한 평균값이다. 전체적으로 원전에 관한 언론 보도에 관심이 많고 국민수용성을 위하여 언론 보도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내 원전보도의 공정성과 정확성은 보통 이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정량적인 값을 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한 평균값만을 제시했다. 이는 인터뷰 참여자들의 답변은 FGI 인터뷰에서 논의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Table 1> interviewees

interviewee	gender	age	Education	Dept(work)
A01	M	30S	BA	admin./officer
A02	M	30S	BA	technic/engineer
A03	M	30S	BA	admin./officer
A04	M	30S	MA	admin./officer
A05	M	30S	BA	technic/engineer
A06	M	30S	BA	admin./officer
A07	M	30S	BA	admin./officer
A08	M	30S	BA	technic/engineer
A09	M	30S	BA	admin./officer
A10	M	30S	MA	technic/engineer
A11	M	30S	BA	technic/engineer
A12	M	30S	BA	technic/engineer
A13	M	30S	MA	technic/engineer
A14	M	40S	BA	technic/engineer
A15	M	30S	BA	technic/engineer
A16	M	40S	MA	admin./officer
A17	M	30S	BA	technic/engineer
A18	M	40S	MA	technic/engineer
A19	M	40S	MA	technic/engineer
A20	M	30S	BA	technic/engineer
A21	M	30S	BA	admin./officer
A22	M	40S	BA	technic/engineer
A23	M	40S	BA	researcher
A24	M	30S	MA	technic/engineer
A25	M	30S	BA	technic/engineer
A26	M	30S	BA	technic/engineer
A27	M	30S	BA	etc
A28	M	20S	BA	etc
A29	M	40S	BA	technic/engineer
A30	F	20S	BA	admin./officer
A31	M	30S	BA	technic/engineer
A32	M	30S	BA	technic/engineer

(Table 2) interviewees' perceptions

Interest in NPP News	4.656
Necessity of NPP News for Public Acceptance	4.281
Fairness of Korean NPP News	2.625
Accuracy of Korean NPP News	2.813
Interest in Anti Nuclear	3.343

4. 연구결과

4.1 부정적 보도 편중

참여자들은 무엇보다도 원전 보도가 원자력에 관한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고 있으며 정부와 원전기관만을 소스로 하여 다루고 있어 편중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원전의 장점은 원전기관이나 정부에서만 언급을 하고 언론은 단점만을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 인 것 같습니다. (A01)

대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자극적인 문구나 헤드라인은 언뜻 이해가 가나, 언론의 기본은 왜곡된 판단을 피하기 위해 사건의 본질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보도하는 것 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했을 때 한 면만이 부각되는 사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속한 보도를 위해 현상의 전달을 위주로 하는 뉴스보도와는 엄연히 기획의도가 다른 시사프로그램에서 조사 본질과 배경을 조사, 소개 하지 못하고 일부의 현상을 전체로 호도하는 것은 입맛을 쓰리게 합니다.(A02)

지나치게 부정적인 보도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전 수출 계약 당시에는 좋은 방향의 기사만 나오다가, 후쿠시마 사고 및 원전비리 사건 이후부터는 부정적인 내용의 보도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부정적, 긍정적 의견이 모두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 쪽의 의견만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A24)

국내 원전보도는 후쿠시마 사고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화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자극적인 보도만 내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원전 비리, 시험성적서 위조, 원자력발전소 정지) 이로 인해 국민들은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고 원전 반대 입장을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에너지 안보상황, 원자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전기요금 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이산화탄소 발생문제 등과 같이 원자력의 明暗(명암)을 균형있게 보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개발한 모든 시스템들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의 상황은 뒷면(부정적)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한 보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A25)

..UAE 원전 수출 당시만 하더라도 원전의 중요성과 필요성 및 원자력계 종사자들의 뛰어난 능력을 보도하는 기사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기사가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기사가 아닐

경우에는 원전 관련 업체의 사회봉사활동, MOU 체결 등을 보도하는데, 실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나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직접 알려주지 않고 다른 이슈를 통해 시선을 돌리고자하는 일종의 트릭과 같은 기사들이다. 주로 이런 기사들은 기관의 홍보실에서 직접 작성하여 신문사를 통해 보도하는 실정이다. (A30)

후쿠시마 사고와 원전 관련 비리 사건에 관한 보도가 시작된 이후, 기존에 긍정적으로 평가받던 부분마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단지 사고나 전기급증 등의 부정적인 상황에서 기사를 급증시키는 것으로 더욱 편중되고 왜곡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원전 관련 보도의 대부분은 선정적이고 흥미 위주의 내용들이 주로 다루어진다. 운영이 잘되고 있을 때는 원전이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원전 관련 뉴스가 다루어지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원전을 불신하게 되고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 된다고 생각된다. 언론에서는 국내외 원전관련 좋은 소식도 균형 있게 다루어야 일반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씩이나마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A05)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주기적인 설명 필요하다. 사고시, 전기수요 급증시 일반인들은 원전보도를 접하게 되므로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므로 원전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상시보도가 필요하다(A09)
사실을 기초로 했다고 하지만 지나친 매녀사냥식의 보도가 많다. 정치권과 유착하여, 정치수단이나 이익집단의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A13).

이처럼 편중되어 있는 기사의 교정과 원전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4.2 원자력 전문 지식 부족으로 인한 왜곡

부정적인 보도에 편중되어 있는 전반적인 현상에 대한 인식은 좀 더 구체적으로 원전보도의 과장적 표현이나 왜곡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져 있었다. 특히 원전 관련 비리사건과 접합되어 원전의 기술적 특성과 장점도 함께 부정적으로 과장되고 왜곡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단편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너무 크게 과대해석 하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가령 문제가 터져서 진행중인데 벌써 결과를 언론에서 결정짓고 해석하여 보도를 내는 경우도 있고 일부로 돌아가서 결론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 듯 합니다.. 원전 시험 성적서 관련도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보도하여 다른 회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작은 회사의 잘못을 알리기에는 대중의 관심을 갖기가 어려우니 큰 회사가 책임을 전가하여 대중의 관심을 끌게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A01)

원전에 대한 국민의 수요성 제고 보다는 원전의 안정성 등 문제점 위주의 보도가 주를 이루며, 정치인들 또는 관련 탄핵단체들에 의해 왜곡보도가 많음. 원전의 장점 보다는 단점만 크게 부각하며, 전문가의 견해를 거치지 않고 타국(일본, 독일 등) 사례를 활용하여 일반화 하는 경향이 있음... 어떻게 하면 원전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대국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도는 적고 그저 이슈를 만들기예 급급한 듯함. 이로 인해 원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원전이 무조건 없어야 할 존재로만 생각하게 만들고 있음(A07)

참여자들은 특히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고리 원전 폭발시 85만명 사망”이라는 기사와 ‘원전마피아’라는 용어를 과장보도와 왜곡보도의 사례로 언급했다.

최근 “고리발전소 폭발시 85만명 사망”이라는 기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기사를 다른 신문사들이 인터넷으로 다시 쓰고 돌려 쓰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리저리 수치를 끌어다가 합쳐서는...(A07)

국내 원전 보도에 대한 내용은 객관적이지 않고 지극히 주관적으로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원전에서 생기는 특정 사건을 마치 원전전체의 사건으로 확대하는 경우도 자주 있으며 초청된 패널의 구성도 편파적인 경우가 있다. 또한 공영방송도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비평하고, 미래의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시청률 및 인기위주의 자극적인 내용만 다루다 보니 전체 국민들이 보는 원전의 시각이 아주 나빠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A18)

‘원전마피아’ 등의 표현으로 언론에서 원자력 관련 산업을 마피아 단체처럼 묘사하면서 원자력 자체에 대한 진짜 해야할 논의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A05)

원전 보도를 진행하는 기자나 앵커 등이 원자력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왜곡보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은 원전 보도 내용에서 미비한 과학지식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문가의 인터뷰를 따지만, 앵커, 기자 등의 전문적인 지식 미비로 방향이 거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A03)
원전고장과 원전사고를 구분하지 못하고 원자로가 정지되면 큰일이 일어난 것 처럼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A16)
기자의 전문성이 떨어져, 의도하지 않게 필요 이상으로 위험성을 확대하여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A20)

과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상세사항을 설명해야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서도 이미 사회적으로

증폭된 원전에 대한 부정적 관심에 소구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한 정보나 뉘앙스로 기사를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언론을 통한 원전보도를 보고 있으면 전혀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자가 보도 자료 또는 추측에 의해서 또는 일어나지 않은 결과까지 과장하여 말하고 있다고 느끼며, 일용직으로 원전 계획예비정비공사에 투입되는 인원들보다도 낮은 수준의 지식으로 기사를 보도하고 있고 안전기능 정지에 대해서도 마치 큰일이 금방 일어날 듯 한 어조와 문체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대책 없는 비판보다는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A19)

원전의 위험에 대해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원자로 고장 정지시 마다 뉴스에 보도되고 마치 방사능이 유출될 것처럼 비춘다. 고장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경우 방사능 유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단순한 고장이며 우리나라 원전의 고장률이 다른 나라와 비교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A22)

기자의 원자력기술 몰이해로 자의적 해석이 많아 잘못된 정보나 뉘앙스의 전달이 빈번함(A29)

4.3 원전비리에 대해 엄격한 내부자 시선

인터뷰 과정에서 참여자들 중 대부분이 자신이 내부자이지만 객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자 했다. 그러한 점은 두 가지 논점으로 이어졌는데 첫째, 원전보도가 아니더라도 국내 언론보도에 대해 일반적으로 불신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치고 있었다. 두 번째는 인터뷰에 참여한 종사자들 자신이 원전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중심 인물들과 무관하며, 오히려 내부자로서 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무엇보다 뉴스란 주목성, 화제성과 특이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당연시하면서 원전보도의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문구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용인하고 있었다.

보도에 대한 내용이 진실이 맞는지 의심을 가지고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A01)

원전뿐만 아니라 타 보도에 대해서도 한쪽의 일방적인 보도만 하고 있는 것 같다.(A10)

우리나라 언론을 믿지 않는 편이다. 언론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보다는 자극적인 기사들이나 사회 흐름에 맞게 기사의 내용을 가공하고 치장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원전 보도 또한 결과를 어느 정도 확정해 놓고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경향을 보였다고 본다. 지금의 언론사는 자신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지 황색저널리즘에 편승해 사실에 기초하기 보다는 가십 거리에 집

착하고 있어 정치는 물론 국내 원전 보도도 신뢰성을 잃었다고 본다. 사실도 많지만 부풀리고 가공한 기사는 더욱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도리어 이렇게 객관적이지 못한 보도가(아님 말고 식의) 독자나 시청자들을 호도하여 잘못된 주장을 계속 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무엇보다도 언론사가 자신들의 기사에 확실한 책임을 지는 경우를 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오보로 인한 피해가 생겨도 아주 작고 작은 부분만을 할애해 정정보도 한 줄 만을 내보내고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듯한 행동이 사람들이 언론에 실망하게 되고 믿음을 점차 낮추는 게 아닐까한다. 양치기 소년같이 되고 있는 언론, 쌓여가는 불신이 나중에 바르게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는 상황까지 안가길 바랄뿐이다.(A17)

좋은 일이란 나쁜 일이란 보도 내용의 진위나 정확성 보다는 언론사들의 특종 또는 실적을 의식한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저급한 기사 등을 볼 때 분노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언론의 수준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들.(A20) 언론들은 원자력의 어떤 설비든지 문제가 생기면 앞 다투어 중요 설비든지 그 외 설비든지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원자력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만 보도를 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다. 실제 원전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정말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운영을 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국민들의 정서가 원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는 만큼 더욱더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함에도 안전에 대해 큰 문제가 있는 것 처럼 자극적인 기사나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A32)

이처럼 인터뷰 참여자들은 원전보도에서 원전 기술이나 고장 등에 관한 보도가 왜곡되고 과장되어 있다고 답변했지만 원전비리와 관련된 보도들은 오히려 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농담 삼아 원전마피아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들은 정말 최종심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돈을 많이 가지죠. 그들을 더 노출하지는 않고 오히려 우리를 다 마치 마피아 처럼 보도하지만...(A24)

원자력발전설비는 방사능 물질을 다루는 만큼 안전을 가장 중요시해야한다. 그런 만큼 중요설비에 사용되는 자재 및 부품들은 항상 검증된 것들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 중요한 자재 및 부품들을 사용함에 있어 비리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A32)

원전비리사건과 관련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파헤쳐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야 함. (A22) 원전 유관 기관에서도 관련 절차에 따라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문제 발생시 숨기는데 급급하지 말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후속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됨(A23)

인터뷰에 참여한 종사자들 자신이 '원전마피아'라는

표현으로 함께 분류되는 것을 거부하며 오히려 내부자로서 더욱 철저한 탐사보도와 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5. 결론 및 제언

위험을 수반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보도의 대원칙은 신속·정확한 보도, 피해자 중심의 보도, 인권 보호가 핵심이다. 그리고 규모나 피해상황을 전달하는 '보도 기능'뿐 아니라 '방재 기능' 및 '부흥 기능'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1]. 그러나 최근 급벽히 팽창한 최근 원전 관련 보도는 이러한 대원칙과는 무관해 보이고 오히려 균형을 잃고 있다는 비판에 기초해서 기획된 본 연구는 일반 국민들과는 달리 원전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획득하는 원전 유관기관 종사자들과의 인터뷰를 실시했다. 물론 인터뷰 참여자들이 원전 보도의 진위를 규명해줄 것이라는 기대에서 연구를 기획한 것이 아니다. 원자력 산업 현장의 종사자들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최근 원전 보도가 더욱 다층적이고 맥락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방향을 지킬 수 있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미디어를 통하는 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편중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일반 국민들과는 달리 당사자로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원전보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국내 원전보도가 원자력의 부정적인 측면만 편중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과장과 왜곡으로 국민수용성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유도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원전 관련 보도가 아니더라도 뉴스 보도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보이는 등 국내 언론사들에 대한 불신을 표명했다. 원전에 대한 보도에 높은 관심과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원전 비리'에 관해서는 더욱더 선명하게 파헤치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로서 국내 원전보도가 보이고 있는 선전적이고 위협적인 소구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은 단지 저널리즘 차원에서만 경계해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원전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자의적 해석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원전뿐 아니라 여타 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보도를 담당하는 전문기자들의 양성과 과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보도의 경우 전문기관의 자문과 점검이 선행될 수 있는 뉴스 생산 구조의 변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터뷰 참여자들의 미디어 이용시간과 선호채널에 따른 차별적 인식 여부의 관계성과 간접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의 간극을 보여주는 비교점 등에 관한 정량적 접근을 해 보고자 하는 의문들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확장된 관심을 후속 연구를 위한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REFERENCES

- [1] Sang Ho-Park, Alternatives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disaster' and 'revival' hold the balance. *Newspaper & Broadcasting*, 2013(5), pp. 16-19. 2013.
- [2] Eun Hee, Cho, News Analysis about Earthquake and Nuclear Crisis in Japan. *Social Science Research*, 23(1), pp. 117-143. 2012.
- [3] Atwater, T., Salwen, M. B & Anderson, R. B., Media Agenda-setting with Environment Issues. *Journalism Quarterly*. 62, pp. 393-397, 1985.
- [4] Brosius & Keppinger,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Television News. *Communication research*,. 17(2), pp. 183-211. 1990.
- [5] Salwen, M. B. Effect of Accumulation of coverage on Issue Saliency in Agenda-Setting. *Journalism Quarterly*. 66, pp. 100-6. 1988
- [6] DongSeop, HyungIl Kim, Risk and Communication: Communication Effects on Social Acceptance of Nuclear Power, *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7(2) pp. 1-22, 2011.
- [7] Myoung Sun Son, (A)comparative study on the disaster news report in South Korea and Japan : focused on a content analysis of Chosun Ilbo and Yomiuri Shinmun on "Fukushima nuclear accident", Master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2013.
- [8] Sang-Dae Lee, Analysis on Negative Media Report of Wolsong Nuclear Power Plant's Heavy Water Leakage: Analysis on Daily Newspaper Report of Wolsong Nuclear Power Plant's Heavy Water Leakage Incident during the Month of October 1999, *Journal of Theoretical and Applied Mechanics*, 21(3), pp. 203-210, 2012.
- [9] Slovic Perceived risk, trust, and democracy. *Risk Analysis*, 13(6), pp. 675-682, 1993.
- [10] Macgregor, D., Slovic, P. & Malfors, T. How Exposed Is Exposed Enough? Lay Inferences About Chemical Exposure. *Risk Analysis*. 19, pp. 649-661, 1999.
- [11] Jae-Eun Lee, Pyung Young Kim, Yoonsoo Chung, An Analysis on determinants of social acceptance of NPP risk.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16(2), pp. 189-217, 2007.
- [12] Slovic, P., Perception of Risk. *Science*, 236, pp. 280-285, 1987.
- [13] Fischhoff, B., Slovic, P., Lichtenstein, S., Read, S. & Combs, B., How safe is safe enough? A psychometric study of attitudes towards technological risks and benefits. *Policy Sciences*, 9(2), pp. 127-152, 1978.
- [14] Chung & Kim, Competition, Economic Benefits, Trust and Risk Perception in siting a potentiality Hazardous Facility.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91, pp. 8-16, 2009.
- [15] Slovic, P., M Layman, N Kraus, J Flynn, J Chalmers, G Gesell, Perceived Risk, Stigma, and Potential Economic Impacts of a High Level Nuclear Waste Repository in Nevada. *Risk Analysis*, 11(4), pp. 683-696, 1991.
- [16] Kunreuther, H., .Risk Analysis and Risk Management in an Uncertain, 2001.
- [17] P Slovic, J Flynn, CK Mertz, M Poumadère, C Mays, Nuclear power and the public. *Cross-Cultural Risk Perception*, pp. 55-102. 2000.
- [18] Sung Kyoung Cho, A Comparative Analysis of Acceptability of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 Policies: Knowledge, Trust, Perception, Acceptability and Participation. Public Policy Research. pp. 59-77, 2003.
- [19] Dong Won Kim, An Analysis on Changes in Korean Social Acceptance Before and After Visiting Nuclear Energy Facilities, MS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08.
- [20] Sung Kyoung Cho, Se-Gi Oh, A Theoretical Approach to Derive Perception Indicators Influencing the Acceptability on Nuclear Energy Facilities & Policies, Journal of Theoretical and Applied Mechanics , 11(4), pp. 332-341, 2002.
- [21] Du-Hwan Won, A Study on the Heterogeneous Preference of Nuclear Facility Acceptance. Resource and Environment Research, 19(4), pp. 853-876. 2010.
- [22] Cvetkovich G., The Attribution of Social Trust in Cvetkovich G, Lofstedt RE (eds) Social Trust and the Management of Risk, Earthscan Publications Ltd, 1999.
- [23] Flynn, J., Bums, W., Mertz, C. K., & Slovic, P. Trust as a Determinant of Opposition to a High-level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Analysis of a Structural Model. Risk Analysis 12, pp. 417-429. 1992.
- [24] Mi Young Oh, Jin-Myoung Choi, Hak-Soo Kim, Stigma Effect of Technology with Risk : the Impact of Stigma on Nuclear Power on the Perception and Acceptance of Products based on Radiation Technology,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52(1), 2008.
- [25] Greenberg, M. R., Sandman, PM, Sachsman, DB & Salomone, KL. Network television news coverage of environmental risks. Risk Analysis 9(1), pp. 119-126. 1989.
- [26] Hyun Woo Lee, Byung kwan Lee, A Framing Analysis of the Media News Coverage on A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Issue in Buan, 5(3) pp. 516-548, 2005.
- [27] Dal-Yong Jin, Yong Jun Ko , Analysis of TV

News of the Nuclear Waste Storage Facility -TV News Reporting of Boo-An case and Gyeong-Ju, Press and Society, 20(4), pp. 5-45, 2012.

최 숙(Choi, Sook)



- 2012년 8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 박사
- 2003년 2월 ~ 현재 :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 2012년 8월 ~ 현재 :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초빙연구원
- 관심분야 : 미디어 교육, 교육과 미디어,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 E-Mail : sookchoi@hotmail.com